

“암센터 기능 강화 세계 최고 암병원 우뚝”

이완식 제12대 화순전남대병원장 취임

최첨단 진단·치료 장비 도입
낮병동 활성화...연구·임상 협력

“세계 최고 암병원 도약, 진료 활성화, 암센터 기능 강화.”

화순전남대병원 제12대 병원장으로 이완식(56) 소와기내과 교수가 취임하며 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은 지난 18일 미래의료 혁신센터 미래홀에서 이근배 전남대 총장, 정진 전남대병원장, 구복규 화순군수, 정준호 국회의원 등 주요 내외빈과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완식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이 제12대 병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공>

이날 취임식은 병원장 약력 소개와 병원인기, 격려사와 축사, 취임사, 축하 메시지 영상 상영, 주요보좌자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자연 속 치유 환경을 갖춘 화순전남대병원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진료 활성화와 암센터 기능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진료 프로세스 개선과 수술 인프라 확충, 낮병동 활성화, 특수 시술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진료의 질과 양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첨단 입사치료기 등 암 진단·치료 장비 도입과 연구·임상 협력 확대를 통해 전국을 선도하는 암 치료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와 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 의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세계 최고의 암병원이라는 지

를 높이 들고 연구와 교육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진료 활성화와 암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화순전남대병원의 암 치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병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며 “모든 구성원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지역과 국가 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완식 제12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1994년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2002년 전남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화순전남대병원 개원 초기부터 소화기내과에 근무하며 소화기 암 진료와 내시경 치료 분야 발전을 이끌어 왔다. /기수희기자



영암경찰, 교통사고 예방 ‘야광모자’ 전달

영암경찰서는 “최근 미암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제20기 찾아가는 실버대학 입학식’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 물품인 야광모자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야광모자는 시야 확보가 곤란한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 어르신들의 시인성을 대폭 높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가 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관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12명에 달하는 등 안전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영암경찰은 11개 읍·면 노인복지관을 직접 순회하며 맞춤형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펼치고 있다.

영암경찰서 관계자는 “어르신 보행자들이 상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야광모자를 비롯한 안전 물품 배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중한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졸업 25주년’ 전남대 간호대 동문 교육관 건립 발전기금 2천만원 기부

졸업 25주년을 맞는 전남대 간호대학 동문들이 휴게리모데이를 계기로 다시 모여 미래간호교육관 건립과 후학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 2천만원을 기부했다.

19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2000년 간호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이 졸업 25주년을 기념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최근 대학본부 5층 접견실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근배 총장과 이명규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좌자, 조행남 전남대병원 외래간호팀장, 이지선 간호교육팀장, 채덕희 간호대학장, 양현주 간호대 부학장 등이 참석했다.

조행남 동문은 “모교에서의 배움과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미래간호교육관 건립을 비롯한 간호대학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근배 총장은 “기부자의 뜻을 소중히 살려 간호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광주 문흥지구대·자율방범대 간담회

광주 북부경찰서 문흥지구대는 19일 “지난 17~18일 오지1동·문흥1동 자율방범대와 간담회 및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범죄 취약지와 우범지역 순찰 활동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주택가 골목길과 상가 밀집지역, 공원 등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가시적 순찰을 실시하며 체계 안전도 향상에 힘썼다.

양은석 문흥지구대장은 “자율방범대 등 협력 단체와 공동체 치안활동을 강화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용기자

결혼

▲양홍렬(광주매일신문 지역특집부 국장)·이상희씨 아들 다훈군, 김태관·최지연씨 딸 민경양=21일(토) 오후 6시 순천 더혜음 웨딩홀 르노아홀.

“철저한 관리 통한 피해자 보호망 강화”

목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올해 2억8천800만원 예산안 확정
협력 체계 확대...유공 위원 표창도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19일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정보영 광주지검 목포지청장과 고광일 이사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센터는 총회에서 올해 총예산을 2억8천8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세부 집행 계획은 인건비 7천900만원, 운영비 5천800만원, 피해자 지원비 1억2천300만원, 역량 강화비 2천200만원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핵심 사업으로 범죄 피해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며 검찰과 경찰, 지자체와의 공조 체계를 한층 굳건히 다진다.

또한 관할 지역 종합병원·청소년수련원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 구성을 확대하고 피해자 대상 법률구조 플랫폼 활용 지원 등도 전개한다.

정보영 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희망을 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위원들이 있어 든든하다”며 “검찰도 피해자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신입 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범죄 피해자 지원 유공 위원 13명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혁영 씨월드고속웨渡假 회장이 피해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성금 1천만원을 기탁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고광일 이사장은 “예기치 않게 범죄 피해자가 된 이들을 헌신과 사랑으로 보살피 준 유관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항용 사무처장은 “이사와 운영위원들의 회비가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심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475건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221명에 게 총 1억3천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농협 목포신안지부, 천일염 유통센터 봉사활동

농협 목포신안지부는 “최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남지역보증센터와 함께 비금농협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세척 소금 포장 작업 등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장을 찾은 임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천일염 원물의 세척, 탈수, 건조 등 ‘씻어 나온 천일염 분쇄’의 작업 공정을 꼼꼼히 견학했다. 이어 전용 용기에 담긴 가는 입자(19%)

와 굵은 입자(57%) 포장·박스 적재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일손을 도왔다.

2024년 개관한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는 연간 1만t의 고품질 명품 천일염을 생산하며 지역 농가 소득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방현용 지부장은 “국내 최대 규모 설비를 갖춘 센터에서 생산되는 명품 분쇄소금이 세계적인 식탁에서 널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전남농기원-사회서비스원 ‘치유농업 활성화’ 협약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 18일 전남도사회서비스원과 도민 건강 증진 및 치유농업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유농업 지원 발굴 및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치유농업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품질 관리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자 발굴 및 복지 현장 연계 ▲치유농업 사회서비스 운영 모델의 지역사회 확산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현재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농촌체험, 심신안정’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국가재난 인력, 은둔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순천·구례·해남 등 도내 6개 농장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치유농업 자원과 복지 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치유농업을 핵심 복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신미경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이번 협력 모델이 지역 사회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세방리튬배터리, 동강대에 교육용 배터리 기증

동강대학교는 “최근 본관 1층 장원홀에서 세방리튬배터리와 ‘교육용 리튬배터리 기증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동강대에 전달된 교육용 리튬배터리는 AI미래로빌리티과, AI미래자동차과, AI융합드론과, AI융합전기과 등 공학계열의 실습 강의에 활용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돌아왔다.

기증식에 이어 장제태 생산지원팀장 등 세방리튬배터리 관계자들은 이공관 실습강의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실습 환경과 교육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교육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향도 모색했다.

앞서 동강대는 지난해에도 세방전지(주)로부터 교육용 모듈 및 직·병렬 실습 키트 등 ‘배터리 10종’을 기증받았다.

장제태 팀장은 “동강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확보와 지역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위형도 단장은 “기업의 기자재 기증은 지역 산업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장비를 접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어 취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담양농협-순창농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

담양군은 지난 18일 군청에서 담양농협·전북순창농협 지부장과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순창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양 지역 농협 지부와 관내 14개 농·축협이 맺은 자매결연의 뜻을 이어가고 상생 교류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식에는 농협중앙회 이광재 담양군지부장과 신종철 순창군지부장 등 총 10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접 지자체 간 연대 확대를 약속했다.

또 양 군 농협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마련한 1천여만원(담양군 502만원·순창군 500



만원)을 교차 기탁했다.

이광재 지부장은 “이번 기탁이 상생 협력을 확대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기자